최근의 민족문학을 돌아보며

청년학생 문학

사실주의 입각한 진보적 변혁의 반향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첨예하게 현실을 담아내고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던 80년대까지의 민족문학이 90년대의 원년을 맞이하였다.

탈이데올로기 시대를 맞이하여 민족문학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우선적인 절차는 민족문학의 성격 규명과 정확한 고찰일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역할을 했던 청년학생 문학과 작가를 되짚어 보며 민족문학의 지향점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註〉

1. 새로운 영혼을 찾아서

90년대의 민족문학은 여러 사람에 의해 곧잘 어두운 것으로 이야기되어지곤 한다. 그 이유로는 소련의 해체가 끕히기도 하고, 민족민주운동의 이념적 퇴색이 내세워지기도 하며 퇴폐적인 상업출판물의 독서시장 잠식이 들먹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평가로서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여기는 탓이다. 한 시대의 문학이 위기나 비관의 상황으로 이야기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당대의 문학적 영혼이 어떻게 시들었는가에 대한 진단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의 민족문학이 간직한 80년대의 영혼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간직된 곳은 어디였으며, 시들었다면 그 까닭은 또 무엇이었을까? 여러 말 할 것없이 민족문학이 간직한 80년대의 영혼은 민중성의 강화에 있었다. 나는 여지껏 그렇게 알고 살아왔다. 광주민중항쟁을 겪고 한 시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역사는 싸우는 자의 것이다. 모든 새로운 역사에는 그것을 위해 싸우는 자만이 앉을 자리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싸운 자는 발언하고 비켜선 자는 들으라!"

80년대는 민중이 싸운 연대였다. 이로 인해 80년대를 사랑한 이들은 모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민중이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앉을 자리를 찾고 자기발언대를 만드는 일에 봉사해왔다. 쉽게 말해 민중의 영혼에 의해 움직여온 민중의 시대였던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떠나 80년대의 민족문학을 말할 수가 없다. 이는 곧 박노해와 백무산을 만들어낸 '문단 밖의 문단'을 지워버리는 격이 되는 탓이다.

흔히들 매체는 권력이라고 말한다. 이 권력이 문단을 지배하고 당대의 문학에 대한 창조와 향유의 질서를 조절한다. 이로부터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문인은 없다. 아직까지 어떤 문인도 문예지와 문단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서 막강한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해 본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80년대는 달랐다. 문예지에 얼굴 한 번 내비친 적 없는 박노해의 시가 평자들을 사로잡고 노보나 투쟁속에 실린 백무산의 시가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의 시집이 나오고 출판매체와 이상문학상이 배려되는 등의 우대는 모두 그 이후의 일들이다.

이때의 경험은 지금의 민족문학을 읽을 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시대적 영혼이 민중성에 있고, 당연한 결과로 사회발전을 주동해 가는 힘의 소재지가 민중의 가슴이었던 때, 민중의 바깥에서 직업문인들의 동정파악만으로 진단된 민족문학은 무척이나 위태롭고 비관적인 것이었다. 그 비관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못되었음은 물론이다. 그 시절 내내 숱한 일꾼들은 좌절하고 침몰하는 한 떼의 지식인들을 보았지만 그것을 근거로 비관에 빠지지 않았고, 똑같은 이유로 급진적 지식인들을 통해 필요 이상의 이론적 풍요를 맛보기도 했지만 그 역시 낙관의 근거로 삼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광주민중항쟁으로부터 7,8월 대투쟁 때까지 지속된다.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그 이후의 상황을 살고 있는 셈이다. 6월항쟁을 통해 민중이 얻어낸 만큼의 대중노선과 7,8월 대투쟁을 통해 민중이 얻어낸 만큼의 정치역량을 가진 채 오늘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영혼은 무엇일까? 7,8월대투쟁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잉태했으며 오늘 그것을 어떻게 기르고 있는 것일까? 90년대의 민족문학은 마땅히 이런 선에서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각설하고, 지금의 현실을 낙관하는 나의 근거는 이렇게 시작된다. 6월항쟁이 끝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민중의 뒷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간 이들이 있다. 그들은 이미 대중의 위력을 맛보았으며 또한 삶의 근거지로부터 조직화되지 못한 대중적 진출의 한계를 목도했다. 그 깨달음이 대중노선을 기초로 한 계급계층운동의 강화로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그 결과는 지난해 5월의 강경대열사 추모투쟁을 통해 유감없이 드러난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침체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6월항쟁 때 등장했던 거리의 비조직대중이 이번에는 대오를 갖춘 조직대중으로 교체되고, 그 이후의 잇따른 시련에도 불구하고 금방 무너질 것 같던 계급계층운동이 의연하게 버티고 서게 된 것이다. 문예일꾼들도 여기에 동참한다. 바로 이 자리가 90년대의 영혼이 돋아난 자리이다.

문단 언저리나 배회하던 문예일꾼들은 이제 계급계층운동의 품안에 둥지를 틀고 들어앉는다. 그리하여 계급계층운동에 의 복무를 통한 자주적 진출을 꿈꾸며 자신의 문예활동을 통해 학생회, 청년회, 노조 등의 대중자치조직을 현저하게 발전시켜 낸다. 여기에 민족문학의 90년대적 영혼이 있다. 이 새로운 영혼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민족문학의 미래를 비관하고 민족세력의 문학적 좌절을 공표하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큰 잘못인 것이다.

이즈음에서 본론을 시작하자. 나는 오늘 민족문학의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는 90년대적 영혼의 한 돌출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 대상은 청년학생문학이다. 자주적 문예운동에서 청년학생문학은 두 가지 차원의 모범을 간직하고 있다. 우선 그것부터 살펴보자.

하나는 타 계급계층운동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모범이다. 자주적 문예운동은 다양한 계급계층운동 안에서 전개되고 있다. 교육문예창작회는 전교조 안에서, 지역노동자문학회는 전노협 안에서, 청년단체의 문예반들은 한청협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 어느것도 전국대학생문학연합이 전대협안에서 움직이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지역노동자문학회는 아직 단위 사업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단계이며 청년단체의 문예반들은 낮은 차원의 연대를을 이제야 형성해가는 단계이고, 교육문예창작회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다고는 하지만 전국대학생문학연합 만큼의 활동력을 못얻은 형편이다. 그 결과는 무엇보다도 먼저 창작성과물을 통해 드러난다. 전국대학생문학연합은 가장 어리고 문학적 수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들어 괄목할 만한 수확을 남긴다. 사회진출을 통해 쉽게 계급계층적 분화를 다시 겪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지금의 풍요는 이미 그 자체로서 모범이다.

또 하나는 타 예술양식과의 대조를 통해 평가되는 모범이다. 자주적 문예운동의 양식적 갈래를 점하고 있는 연희, 음악, 미술, 영화 중 그 성장의 정도가 기존 자본주의 시장의 상업적 유통구조 안에서까지 인정될 만큼 높은 예술양식은 현재로서는 문학밖에 없다. 음악, 영화 등 대중적 영향력이 큰 예술양식일수록 제도권의 장애를 크게 받는 측면이 있어서 비교평가하는 것이 무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모범은 모범이다. 왜냐하면 여타의 예술양식이 단위에서 복무하는 만큼의 활동을 문학역시 문예학교나 시화전, 시낭송회, 문집발간 등을 통해 꾸준히 수행해오면서 얻어낸 수확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글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밝히자.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상업적 유통구조를 통한 독서시장에 던져진 청년학생의 문학'으로 범위를 국한시킨다는 점이다. 이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경계선을 갖는 범주설정이다. 하나는 '청년학생'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나는 이 말을 학적부상에 등록된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사용할 의사가 없다. 현재로서는 졸업해 사회진출이 완료되어 있는 자도 청년학생으로서의 삶을 통해 창작한 작품일 경우에는 포함시켰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보다 중요한 측면으로써 오늘 나는 자주적 문예운동의 성과만을 대상으로 한다. 무슨 뜻인고 하면, '감색운동화 한 켤레'의 엄우흠, '친구여 찬비 내리는 초겨울 새벽은 슬프다'의 채광석, '거리에서 부르는 사랑노래'의 장세현 등은 그냥 문인으로 생각해두기로 했다는 뜻이다. 이곳에서 90년대의 영혼을 찾는 것은 무리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대학생작가라는 용어는 창작당시의 신분이 학생이었다는, 그래서 조숙한 여성문학, 청년학생의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청년학생문학, 새세대 어린이를 인식교양해갈 아동문학(이오덕선생은 이것을 어린이 문학으로 바꾸자고 한다. 동감이다.)으로 한층 풍부하고 심화된 구성부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물론 사회경제적 처지조건을 달리하는 각기 상이한 계급계층이 각자에게 고유한 예술적 가치관과 실정에 맞는 문예이론을 민족문학의 틀안에서 세우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졸고, '자주적 문예운동을 위한 조직편제와 그 운용'에서)

하나의 민족은 여러 계급과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계급계층은 동질의 것이 아니며, 서로에게 고유한 처지조건들이 부여되고 있는 이상 그에 따라 각자의 가치관들을 갖는다. 이로 인해 그들의 문학 역시 고유의 계급계층적 성격을 갖게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청년학생문학의 성격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청년학생문학은 청년의 문학이요 학생의 문학이다. 이를 좀 살펴보자.

민족문학에 90년대적 영혼이 부여되기 전, 그러니까 '계급계층적운동에의 복무를 통한 자주적 진출'로 인해 자주적 민족문학이 모색되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청년학생문학을 대하는 올바른 관점도 마련되지 못했고 또한 그것을 민족문학권 안에 배치할 자리도 없었다. 이 점은 지난 시기의 시대적 제약이요 한계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고민의 여지마저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세대상의 분류로 보아 성인문학만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기존 문단의 흐름에 대해 이오덕선생은 오랫동안 어린이문학의 설자리를 요구해왔으며 최원식 등의 평론가들도 때때로 성장소설을 강조해왔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 한 신예 작가임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서 사용된다. 채광석의 경우가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 아까움을 표시만 해둘뿐 어쩔 수 없다. 청년학생문학 창작의 결과로서만 있는 것은 아닌 까닭이다. 만일 이 범위를 넓히다보면 청년학생의 문학적 형상화에서 대단히 소중한 업적을 남겨온 정도상을 포함, 청년학생문학과 기성문인의 경계는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그랬을 때 이 글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다음으로 국한된다.

이강혼의 서사시 '그해 봄날의 푸른빛 프랭카드'(개마고원), 강경대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조직된 '4·26창작단'의 서사시 '사랑할 것이 많이 남았는데'(힘), 최은희의 서정시 '쑥고개 편지'(대동), '희망이 있는 고통은 아름다워라'(힘), 신동호의 서정시 '겨울 경춘선'(푸른숲), 한유진, 이서하의 연작소설 '오월대'(힘), 이상권의 장편소설 '땅의 사람들'(산하), '가지골에 장마져도'(힘), 이영실의 장편소설 '이제는 지는 꽃도 눈부셔라'(푸른숲), 김혜자외 임수경통일문학상 중단편입선작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두리), 이상권의 동화 '딸꼬마이'(산하), '고독한 가수와 꼬마배우'(산하)

이외에도 내가 아직 못접한 책들이 틀림없이 있긴 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생략할 수밖에 없다.

2. 청년학생문학이 선자리

이 풍성한 성과물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역시 청년학생문학을 민족문학의 어느 곳에 배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청년학생문학은 자주적 문예운동의 산물이다. 6월항쟁과 7,8월 대투쟁의 교훈을 통해 모색되기 시작한 자주적 문예운동은 그 계급계층 운동적 성격에 따라 필연적으로 계급 계층의 문학을 낳게 된다. 80년대에 추상적 민중문학으로 존재하던 것이 주체화되고 분화되어 노동문학, 농민문학, 청년학생문학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 문예 운동의 형태 변화에 따라 민족문학의 형태 역시 다양한 계급계층의 내용을 포괄하는 자주적 민족문학으로 바뀌고 있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생산물의 내용과 형식은 생산자의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된다. 새로이 혁신된 자주적 민족문학은 직업문인들의 진보인텔리문학 외에도 계급에 따라 노동계급의 자주성 실현에 복무하는 노동문학과 농민의 현실과 투쟁을 반영하는 농민문학으로, 또 계층에 따라 여성의 이중억압적 처지로부터 나오는 여성문학으로 분화되어 나오게 된다. (…) 이제 이 글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밝히자.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상업적 유통구조를 통한 독서시장에 던져진 청년학생의 문학'으로 범위를 국한시킨다는 점이다. 이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경계선을 갖는 범주설정이다. 하나는 '청년학생'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나는 이 말을 학적부상에 등록된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사용할 의사가 없다. 현재로서는 졸업해 사회진출이 완료되어 있는 자도 청년학생으로서의 삶을 통해 창작한 작품일 경우에는 포함시켰다는 뜻이다.
>
> 또 하나는 보다 중요한 측면으로써 오늘 나는 자주적 문예운동의 성과만을 대상으로 한다. 무슨 뜻인고 하면, '감색운동화 한 켤레'의 엄우흠, '친구여 찬비 내리는 초겨울 새벽은 슬프다'의 채광석, '거리에서 부르는 사랑노래'의 장세현 등은 그냥 문인으로 생각해두기로 했다는 뜻이다. 이곳에서 90년대의 영혼을 찾는 것은 무리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대학생작가라는 용어는 창작당시의 신분이 학생이었다는, 그래서 조숙한 여성문학, 청년학생의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청년학생문학, 새세대 어린이를 인식교양해갈 아동문학(이오덕선생은 이것을 어린이 문학으로 바꾸자고 한다. 동감이다.)으로 한층 풍부하고 심화된 구성부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물론 사회경제적 처지조건을 달리하는 각기 상이한 계급계층이 각자에게 고유한 예술적 가치관과 실정에 맞는 문예이론을 민족문학의 틀안에서 세우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졸고, '자주적 문예운동을 위한 조직편제와 그 운용'에서)
>
> 하나의 민족은 여러 계급과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계급계층은 동질의 것이 아니며, 서로에게 고유한 처지조건들이 부여되고 있는 이상 그에 따라 각자의 가치관들을 갖는다. 이로 인해 그들의 문학 역시 고유의 계급계층적 성격을 갖게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청년학생문학의 성격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청년학생문학은 청년의 문학이요 학생의 문학이다. 이를 좀 살펴보자.
>
> 민족문학에 90년대적 영혼이 부여되기 전, 그러니까 '계급계층적운동에의 복무를 통한 자주적 진출'로 인해 자주적 민족문학이 모색되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청년학생문학을 대하는 올바른 관점도 마련되지 못했고 또한 그것을 민족문학권 안에 배치할 자리도 없었다. 이 점은 지난 시기의 시대적 제약이요 한계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고민의 여지마저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세대상의 분류로 보아 성인문학만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기존 문단의 흐름에 대해 이오덕선생은 오랫동안 어린이문학의 설자리를 요구해왔으며 최원식 등의 평론가들도 때때로 성장소설을 강조해왔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90년대 들어 청년학생 문학은 가장 왕성한 활동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민족문학내에 괄목할만한 수확을 남긴다

'청춘송가'를 성장소설 또는 교양소설로 보는 임선생의 지적은 매우 타당합니다. (…) 이제 교양소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개성에 눈뜨고, 사랑에 눈뜨고, 우정에 눈뜨고, 사회에 눈뜨는 아주 예민한 시기의 청년들을 옳은 인식으로 끌어줄 수 있는 교양소설,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모형을 하나 근사하게 해결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원식 '창작과 비평' 통권65호의 좌담에서)

이와같이 우리 평단에서 학생문학을, 초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아동문학으로, 중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 성장소설로, 대학생까지를 포괄해 교양소설로 생각해 본 흔적들은 있으나 여기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을 새로이 하고 그를 민족문학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고민했던 사례는 없다. 이는 후에 청년학생이 문학적으로 성장하면서 주체의 문제를 제쳐둔 채 타 계급계층의 문제에만 관심을 쏟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된다. 당연한 결과로 그들 자신의 삶에 관한 것은 극소수의 진보인텔리가 대신 수행하거나 (이 작업을 대표적으로 잘해온 작가가 정도상이다) 아예 퇴폐적 상업물의 독점영역(강은 특성은 객관현실이 학습된 사상에 크게 간섭받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출신성분에 영향받는다는 세번째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졸고, '청춘의 길목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서)

나는 이 글에서 청년학생의 존재적 특성을 '나라와 계급의 귀이자 눈이요 감각기관'(이는 사실 고리끼가 예술가에게 내렸던 정의이다)에 있다고 보고 그것이 최은희의 시에 반영된 측면을 살폈었다. 인용문의 첫째, 둘째, 세째 특성이 그래서 이야기된 것이다. 본격적인 '청년학생문학론'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이는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청년학생문학의 주체를 살펴보면 명백히 존재하는 실체가 작품내용이나 소재상의 분류를 하다보면 증발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즈음에서 청년학생문학이 민족문학의 어느 지점에 배치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먼저 가장 우선해서 놓여질 자리는 그간에 세대적 공백이 생겼던 자리이다. 자본주의사회의 무계획적 성격은 여성과 더불어 어린이에서 청년에 이르는 비경제활동 세대를 심각하게 소외시킨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이들이 자본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랬을 때 우리와 같은 식민지사회는 미래의 주역이 제국주의문학의 집중된 표적이 됨으로써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뉴키즈 사태'도 그러한 예이다. 청년학생문학은 1차적으로 이들의 삶의 교과서로서 존재하게 된다.

다음으로 배치될 자리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민감한 존재적 특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투쟁의 자리이다. 아직까지 나온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학생문학은 민족해방운동의 선봉에서 창작된다. 이 역시 기존의 전문작가들이 다루지 못해온 영역으로써 투쟁의 교과서로 차지하는 몫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학생문학은 여러 계급계층의 문학과 강고한 연대를 이루는 동맹의 자리에 배치된다. 이는 자주적 민족문학의 발전에서 실로 중요한 몫이 부여되는 측면이다. 근자에 들어 비인기 영역으로 소외돼온 농민문제의 형상화를 정작 농민 당사자들보다 더 깊은 체험을 통해 탐구해간 이상권의 '땅의 사람들'이 보여준 탁월한 모범이 그렇듯, 이는 창작내용에서도 중요하지만 창작주체의 확대재생산에서도 지대한 의미를 갖는다. 청년학생문학의 주체들은 얼마 안있어 사회진출과 더불어 고스란히 계급계층적으로 확산되어가는 탓이다.

이번의 경우 확산방향은 네곳이다. 첫째, 노동계급의 지향이다. 이영실이 여기에 속하는데 그의 소설은 청년학생의 삶 자체가 노동계급으로 전이해가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농민운동으로의 지향이다. 최은희와 이상권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의 경우 대학생들이 농촌활동을 통해서나 배울 수 있는 농민적 삶의 실체들을 밝히고 있다. 셋째, 청년운동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한유진, 신동호, 김혜자 등이 잠정적으로 이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미진출한 경우인데 이는 학내잔류 및 군입대를 포괄한다. 여기에 속하는 4·26창작단, 이서하, 이강혼은 당분간 청년학생의 삶을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들이 거둔 창작성과물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3. 복무와 성취의 모순

이들의 작품을 평가할 때 가져야 할 시각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운명에 어떻게 복무하고 있는가이다. 청년학생문학은 무엇보다도 자주성 실현을 향한 청년학생의 투쟁을 통해 창조된 문학이다.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소속집단의 삶을 통해 검증되는 부분일 것이다. 이 때문에 좋은 작품이 때로 집단 안에서 매도되는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집단에의 충실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또 하나는 타 계급계층의 대중에게서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예술적 성취의 여부이다. 청년학생문학의 독자성은 민족문학의 범위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지만 그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출판된 다음에는 사회적 재산의 한 형태로서 민중이 민족문학을 향해 요구했던 모든 종류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방금 이야기된 '복무'의 측면과 '성취'의 측면은 어느 하나만이 강조되어서는 안되고 굳건히 결합되어 있어야 옳다. 정치표준과 예술표준의 분리, 사상성과 예술성의 분리가 엄격한 의미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양자가 통일된 질문으로서 사상예술성이 물어져야 할 자리에서 복무와 성취의 모순을 들먹어야 하는 것이 청년학생문학의 현단계라면 이는 솔직이 한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한계를 극복한 작품이 최은희의 '쑥고개 편지', 신동호의 '겨울 경춘선'을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흔치 않은 실정이다. 모범으로 평가되는 작품의 대부분이 어느 한 측면을 결하고 있다.

먼저 소속집단의 이해와 요구에 충실한 경우부터 살펴보자. 한유진, 이서하의 '오월대'는 한 사회집단이 어떻게 해서 자신을 보위할 무장력을 갖추게 되는가를 그려낸 대범한 연작소설이다. 필자들은 서문에서 글을 쓰는 목표를 ① 전남대학교의 투쟁의 역사에 대한 총화 ② 투쟁하는 청년학도의 삶을 형상화 ③ 오월대의 모범을 전파하는 것에 두고있다. 이런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을 달게 없다. 이서하의 '약속' '내리사랑'등을 통해 일상적 삶이 형상화되고 한유진의 '오월대장' '무등을 위하여'등을 통해 보다 고양된 투쟁의지가 그려지면서 연작이 갖는 상호 상승효과에 의해 전편은 대단한 역동성을 보인다. 이 점이 선진활동가들에게 깊이 사랑받을 만한 측면이다. 허나 예술성의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세월이 흘러도'가 갖는 감상성이나 '내리사랑'의 긴 편지투에서 오는 객관묘사의 방기는 '오월대'에 대해 낯선 독자들에게는 매우 설득력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주요 대상을 선진활동가보다 신입생에게 맞춰두고 있는 이강혼의 서사시 '그해 봄날의 푸른빛 프랭카드'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산대학교 인문대 학생회장과 영문과 신입생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두 사람의 이성적 관심이 선배에게는 대중지도자의 자질향상으로 후배에게는 애국의식의 고양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이 시는 결말이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전형성의 획득으로 인해 영화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해동의 '어머니'와 같은 서사시에 비추어 이야기 얽음새의 지나친 단순화와 서정토론의 참신성 부재 등이 노출된다. 작년 5월 강경대, 박승희 등의 죽음을 다루는 추모시집, 4·26창작단의 '사랑할 것이 많이 남았는데', 최은희의 '희망이 있는 고통은 아름다워라' 역시 거칠고 시적 호흡이 고르지 않아 튀는 곳이 많다. 이 작품들은 모두 집단의 요구에 충실하고 사상의식이 높은 만큼 한결같이 모범적인 복무를 보여 동료들에게는 많이 읽혔지만 예술적 완결미가 없어 타 계급계층에게는 소외감을 주었다. 일정한 목적의식이 앞세워져 짜기운 흔적을 많이 남겼던 것이다.

반면에 신선한 예술적 충격을 줄아와 기성문인들을 놀라게 한 작품들은 청년 학생운동의 요구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단내부에서 조명을 받지 못한다. 이영실의 장편소설 '이제는 지는 꽃도 눈부셔라'는 학생운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운동을 수행하는 이들의 개인적인 삶을 다룬다. 추천사를 쓴 박범신이 말했듯이 '운동권소설'이 아니라 '연애소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여대생을 옷벗겨놓기에만 매달려온 기존의 상업소설들과 달리 식민지의 청년학생들이 맞게 되는 심오한 인간의 문제를 다룬다. 연애를 통해 조국의 운명을 알아가고 민중의 길을 묵묵히 따르게 되는 여대생, 홀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가서는 투쟁을 포기할 생각을 해보다가 학교에 와서는 다시 투쟁의 선봉에 서는 외아들, 둘이 겪는 조직노선의 갈등 그리고 그런 환경이 몰아다주는 이성적 방황…. 이 결말이 그 어떤 획기적인 전망도 열어주지 못하지만 영혼의 밑바닥까지 숨김없이 내보여주는 진솔한 서술을 통해 독자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젊은 날의 초상'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눈을 한차례도 흐트러뜨리지 않는 희순과 인간적 고뇌를 거듭하는 진수를 통해 청년학생을 경직된 집단으로 알아오던 피상적 인식을 송두리째 엎게 되는 것이다.

이상권의 '땅의 사람들'도 농민운동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농민이 가진 통한의 운명을 그린다. 하나하나의 대사에 깃든 토지와 노동과 농민적 염원의 응어리를 통해, 그리고 성식, 옥금, 태호의 인생길을 통해 농민의 좌절과 몰락이 갈구하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해야 할 필요를 그리는 것이다. 독자수요를 많이 갖지 못하므로 인해 상업적 수익성에 매달려 사는 기성작가들에게야 기대하기 힘든, 그래서 거의 공백으로 남다시피한 농촌문제를 이처럼 심도깊게 그려낸 이 소설이 그러나 학생대중에게조차 소외된 이유는 청년학생운동의 현안과 이 소설간에 놓인 거리감 때문일 것이다.

비교적 두 측면의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는 성과는 서정시에서 나온다. 최은희의 '쑥고개편지'와 신동호의 '겨울경춘선'이 그것이다. 최은희의 신선한 환기력을 가진 서정성과 신동호의 차분한 시적 진술은 기성 문단에서도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둘의 서정시에 들어선 서정적 주인공은 시대정신에 체현된 그 선진성으로 인해 청년학생 내부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상으로 주요 작품들을 언급해 보았다. 시간과 지면 그리고 집필역량의 부족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서술밖엔 못한 점 아쉽기 그지 없다. 이미 허락된 지면이 끝났으므로 간단한 소견을 술회할 여유밖에는 없을 것 같다.

아직까지 청년학생문학이 내온 성과물의 공통된 특징은 창작주체들이 한결같이 사실주의의 태도를 이탈하지 않으려는 목적의식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국주의의 문화침투가 창작방법을 향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대단한 장점이라고 본다. 이는 추상적 세계관을 구체적 인생관화로 대체해가는 또 하나의 장점과 맞물려 더 높은 도약의 디딤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80년대 민족문학의 가장 큰 한계는 사회진보의 문제를 심오한 인간의 문제를 통해 제기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신동호, 최은희의 시, 이상권, 이명자의 소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극복의 첫발을 내딛은 셈이다.

그러나 역시 걸리는 문제는 예술적 완성도이다. 솔직이 따지고 보면 복무와 성취가 괴리되는 모순도 여기서 기인되는 것이다. 나는 오늘 언급한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아직 미완성의 글이 발표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점이 재고되어야 된다. 성과가 중요하지만 목표가 되어선 안된다. 자주적 문예운동의 강조점은 자주성의 실현에 있는 것이다.

김수영은 어디에선가 이런 뜻의 말을 한 적이 있다. '글을 쓰다 보면 성공작이 나올 수도 있고 실패작이 나올 수도 있다. 얼마든지 수작이 나올 수도 있고 태작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불성실한 글이 나와서는 안된다. 문학앞에서 불성실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작가의 의무이다.' 나는 이 말에 동감한다. 그 어떤 경쾌한 성공작보다도 피눈물로 빚은 실패작을 지지한다. 내가 읽기에 이상권, 이영실의 소설이 그랬다. 흠집 많고 서툴러 보이며 그럴싸하지 못했다. 그러나 영혼이 살려 있었다. 그냥은 못읽고 울었다. 결과를 비관하든 욕하든 이런 글은 원고료맛을 안 다음에는 쓰지 못하며 읽고 나선 틀림없이 영향을 받게 돼있다. 이를 많이많이 고민해 봄이 어떨까?

김 형 수
〈시 인〉

여러 계급·계층의 문학과 연대로 '동맹'의 자리 매김

사회진보의 과제를 인간본질의 문제로 제시하지 못해